

“평범한 업종은 NO” 떠오르는 이색가게

총장로·구시청 일대 실내 야구장·낚시 카페 등 성업 이색 먹거리도 인기... '요식업 포화' 아이디어로 승부

“스트라이크, 볼, 홈런~” 19일 밤 9시, 광주시 동구 광산동 구시청 일대에는 야구장에서나 들릴 법한 경기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인근에 자리 잡은 실내 야구장은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를 통해 경쾌한 음악과 함께 야구 용어를 들려줬다. 과거에는 자동으로 발사되는 공을 받아치는 실내 야구장이 성행했지만 최근에는 소비자가 서로 대결을 하고, 직접 공을 던질 수도 있는 등 체험형 야구장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이 실내 야구장 인근에는 다양한 체험형 게임이 갖춰진 오락실도 문을 열었다. 한 때 조정기를 움직이는 소극적인 오락실이 주를 이뤘다면 이곳은 게임 속에 등장하는 도로 지형에 따라 차체가 요동치는 차를 직접 운전할 수 있는 등 소비자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다양한 게임기를 갖추고 있었다.

이처럼 광주시 동구 일대 구도심에 체험형 상가들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음식점과 술집

등이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는 곳도 속출하면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체험형 매장들이 늘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구도심 상권 트렌드가 '체험·이색 업종'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유행 업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시청 일대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 지난 해부터 야구장과 공기정 사격장, 체험형 오락실 등이 문을 열었고 술과 사격을 결합할 수 있는 술집도 소비자를 맞고 있다.

또 최근 총장로 일대에서 가상체험공간 2곳도 개장을 앞두고 있고, 낚시를 하는 카페들도 성업 중이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 술을 마시기도 하는 체험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도심권 업종에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총장로, 금남로 일대에서는 간판을 새로 다는 상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장사가 되지 않는 상가가 문을 닫는 대신, 대만 카스테라와 쌀핫도그 등 이색 먹거리 등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최근 성인용품점이 총장로에 첫 진출했다는 점이다. 과거 번두리나 뒷길에 자리 잡거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후문을 만들어 영업을 하던 성

인용품점이 젊은 층의 이동이 잦은 총장로에서 개업했다는 것은 이색적이다.

구도심 상권의 침체가 깊어지면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상인들이 더욱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있는 셈이다.

총장로의 한 상인은 “처음 성인용품점이 문을 열었을 때 상인들조차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젊은 여성들이 즐겨 찾는 등 장사가 잘 되는 걸 보고 놀랐다”면서 “유행업계의 유행이 빠르다 보니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엔 소비자가 즐길 수 있는 업종이 유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2015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 창업한 기업 가운데 2014년 현재 살아남은 1년 생존 비율은 62.4%였으나 2년 생존율은 47.5%로 떨어졌다.

절반이 넘는 창업 기업이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했다는 창업 3년째 생존하는 기업은 전체의 38.8%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3년 생존율은 숙박·음식점(30.3%), 도·소매(35.0%)가 낮았으며 제조업(49.8%), 운수업(51.0%)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약 오룡지구 공동주택사업 무늬만 공모”

지역업체들 “시공능력평가 등급 간 격차 커 참여 불가능”

남약 오룡지구 공동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지역 업체 배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개발공사가 세부 입찰 평가항목에서 불합리한 배점기준을 적용, 지역 업체 참여를 배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지회 소속 건설업체들은 20일 “남약 오룡지구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 전남개발공사가 1차 공모에서 ‘과도한 입찰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 내용을 바꿔 재공고했지만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볼 때 사실상 지역 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공모였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9일 오룡지구 내 공동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에서 도급순위 30위로 참여 자격을 제한했지만, 지역 건설업체 건의를 수용해 12월 16일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급순위 제한을 없애 뒤 재공고했다. 이에 따라 11개 업체가 참여 의향을 제출했고 이 가운데 두 곳은 지역 업체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경된 재공고의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지역 업체 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지역 업체들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에서 건설투자금(CI)을 1개사로 제한해 지역 업체

의 컨소시엄 참여를 불가능하게 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계약 평가 항목에서는 건설회사 시공능력평가에 배점 40점을 부여하고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1~5위 40점, 6~10위 30점, 11위~15위 20점, 16~20위 10점, 21위 이하는 5점)했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낮은 지역 업체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지역 업체 관계자는 “도급 순위 제한을 없앴다고 하면서 평가 항목에서는 시공능력평가 배점이 높아 지역 업체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며 “컨소시엄 참여도 불가능한데, 이러한 배점 기준으로는 아무리 우수한 제안을 하더라도 입찰할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다른 지역 공모사업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산점을 주고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한다”며 “부산 만덕지구, 수원 고등지구, 시흥 V-city,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민간 공모에서는 지역 업체 컨소시엄 참여시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했는데, 오룡지구 공모사업은 컨소시엄 참여도 제한하고 지역 가점도 없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중흥건설 을 신입사원 150명 선발

중흥건설이 올해 신입사원 150명을 선발하기로 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 나선다.

중흥건설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직원(1500여명)의 10% 수준인 150명을 뽑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

중흥건설은 지난 2014년 115명을 선발한 데 이어 2015년 61명, 지난해 150명을 각각 뽑았다. 중흥건설은 앞으로도 매년 10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장선 중흥건설 회장은 최근 “지역인

재 위주로 신입사원을 뽑고 있다”며 “새로운 인재가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흥건설은 지난 17~18일 1박2일간 나주 중흥리조트에서 상반기 중흥건설 건축부 신입사원 직무교육을 진행 했다. 이번 교육은 이길호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신입사원 등 110여명이 참석, 직무교육과 외부 감사 초청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광주은행, 소상공인 100억원 특별보증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광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5억원을 출연하여 광주광역시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7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1일부터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보증은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다. 대출 신청 후 1년간 광주시의 2.3% 이자 차액 보전으로 최저 0.6%~최고 1.2% 수

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18억원을 광주시에 출연해 3200개 업체 360억원을 지원해 신규 창업 업체 및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광주은행 송종욱 영업전략본부 부행장은 “골목상권 신규창업 지원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예약을 해결함으로써 지역민과 상생 발전하는 지역은행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전남 아파트 5월까지 2182세대 입주

오는 5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 2182세대가 집들이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4월 광주에 ‘북구 풍향동 교대 금호어울림’ 960세대(60㎡이하 196세대·60~85㎡ 764세대)를 시작으로 ‘용두동 미래하이 클래스’ 64세대(전용면적 60㎡이하), ‘본촌동 베스트클래스’ 50세대(60㎡이하 2세대·60~85㎡ 48세대) 입주가 차례로 이뤄진다.

5월에는 공공임대 ‘북구 운암동 수하임’ 86세대(전용면적 60㎡이하)가 입주 예정이다.

전남 지역도 총 1022세대가 입주민을 맞이한다.

3월 ‘광양시 중동 진아리채’ 616세대(60~85㎡)와 ‘순천시 저전동 더플레이스’ 52세대(60~85㎡)의 입주가 시작된

다.

4월에는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 혁신 EG the1’ 293세대(60~85㎡), ‘영광군 영광읍 동동리 동아아스트로’ 61세대(60~85㎡)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한편 내달부터 5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5만5000만세대)보다 20.6% 증가한 6만6442세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만7638세대, 지방 4만8804세대였으며 주체별로 민간 6만2431세대, 공공 4011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60㎡이하 1만8670가구 ▲60~85㎡ 3만9773가구 ▲85㎡초과 7999가구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김대성기자bigkim@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해킹... “정보 유출 없어”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가 20일 새벽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접속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확인하려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4시 30분께부터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는 “정의도 평화도 없다”는 문구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는 유감이지만, 알바니아가 세르비아인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세계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해커의 메시지가 영영어나와 있다.

해커들은 자신을 ‘Kuroi’SH and

Prosox’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면서 “세르비아는 잊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메시지 내용으로 볼 때 이번 해킹은 한국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알바니아를 타깃으로 한 테러 암시로 해석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회사 홈페이지가 직접 해킹당한 것이 아니라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을 관리하는 외부 웹호스팅 업체가 공격을 받아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고객 개인정보 등 자료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취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